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통일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연습지나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공 통 문 항

<가>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는 일정액의 재산을 자식의 교육자금,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 사업체를 차려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식 명의의 신탁기금을 설정해 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중 어느 경우를 선택한다 해도 그 사람의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없었을 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라면 그 소득은 개인의 능력에서 생긴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라면 이윤에서 생긴 것으로, 세 번째 경우라면 물려받은 부에서 생긴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윤리적 견지에서 이러한 소득의 범주들을 구분할 근거가 있는가? 만약 자신의 개인적 능력으로 산출한 것 또는 스스로 쌓은 부에서 나온 산출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재산도 자녀에게 물려줄 정당한 권리는 없다고 한다면, 자기 소득을 방종한 생활에는 사용해도 되지만 상속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는 비논리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분명히 그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자본주의 윤리란 자유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로서 나는 소득 재분배만을 위한 누진 과세는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분명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자유는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조건의 비동등성을 나타낸다. 본질적으로 자유는 사회적 차별을 뜻한다. 자유는 사회적 분할을 전제하며 내포한다. 어떤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피하고자 갈망하는 종속의 형태가 존재해야 한다. 자유롭다는 것이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또한 자기 거주지에 묶여 마음대로 이동할 권리를 부정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다는 것이 속박과 책무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거나, 일이나 의무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속박되어 있고 책무를 행하며 일을 하고 의무를 지닌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다는 것이 제한 없이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구속받고 있음을 함축한다. 고대나 중세 영어에서는 자유란 언제나 일종의 면제를 의미했고, 면제는 특권이였다. 자유롭다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음을 뜻했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근대적 모습의 자유 속에는 본질적인 모호함이 존재한다.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허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규정된 근대적 형식의 자유는 그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전근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는 선별적이다.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자유는 억제와 강제를 다른 한 극으로 갖는 관계에서 또 다른 한 극을 구성한다. 근대적 자유의 결정적 특징은 대체로 사실상 특권적 부류의 사람들에 국한된 경험을 철학적으로 일반화한 것 속에 숨겨져 있다. 근대에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신을 대체했다. 그러나 규정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문제는 주인의 자격으로 신을 대체할 인간과 지배받는 운명을 지닌 인간이 동일한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과세 전 빈곤율은 17.3%로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과세 후 빈곤율은 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빈곤율이란 중위 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과세 전 빈곤율과 과세 후 빈곤율의 차이는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국가별 (%)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한국
과세전 빈곤율	34.7	32.3	32.2	31.9	31.9	29.7	27.3	26.0	17.3
과세후 빈곤율	7.9	8.8	14.3	10	13	11.4	14.4	11.9	14.9

<자료 출처: 연합뉴스, 2014년 8월 7일 보도>

1.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를 비판해 보시오. (1000자 ± 100자)

계 열 문 항

<가>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의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함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뺨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나> 데첸은 원색을 좋아한다. 입술은 불탄다. 키라는 셋노랑다. 자랑도 원색이다. “남자친구는 아니고 밀당 정도 하는 사이는 수십 명은 될 거야. 내가 예쁘잖아.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지. 누가 나한테 맞는지 알아가는 중이야. 내가 사실 어떤 옷도 잘 어울리고 매력이 있잖아. 유머도 있고. 사람들이 매력적이 되는 방법을 많이 묻는데 비결은 하나라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내친김에 자기 댄스 동영상도 보여줬다. 온통 웨이브다. 예의상 잘 춘다니까 눈을 찡긋하며 그런다. “타고나야 한다니까.” 이럴 때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인다.

데첸의 자랑엔 묘한 매력이 있다. ‘너보다’가 없다. 너보다 내가 더 예쁜 게 아니다. 자기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다. 솔직히 데첸의 춤 별로였다. 패션도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데 부러웠다. 질투가 났다. 나는 항상 내게 애증과 교정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서다. 이 여자에게는 세상이 다 자길 버려도 곁에 있어줄 포근한 짝이 이미 있다. 바로 자기다.

부탄 남쪽 치랑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했단다. 소녀 친구들을 때로 물고 다녔다. “아주 시끄러운 애였어.” 학교를 들어가면서 고민이 커졌다. “교복으로 부탄 남자 전통 옷인 고를 입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못 견디게 불편한 거야.”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차카(여자 같은 남자)’라고 놀리는 애들은 있었다. 14살 때 데첸은 여성 옷인 키라를 입게 해주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가겠다 버텼다. 신문에 인터뷰도 했고 교육부 장관한테 편지도 썼다. 학교가 쫓고 그때부터 그는 여자였다. 졸업 뒤 미

용사로 일했는데 인기가 하늘을 찌렀다고 한다. “내가 또 센스가 보통이 아니거든.” 영화도 다섯 편 찍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자기 혼자만 용선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 같다. 수용의 공기가 그를 키웠다. 어릴 때는 엄마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니”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그가 자신은 여자라고 선언했을 때 어머니는 스스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비싼 천을 사다 그의 키라를 만들어줬다. 군인인 아버지나 네 형제자매도 그냥 받아들였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나는 좋은 인간이니까.” 언니는 두 아들을 동생에게 맡겼다. “나는 아주 엄격한 엄마야. 그렇다고 강요하진 않아. 나는 나를 믿고 애들도 믿어. 애들을 관찰하고 경험을 나누려고 할 뿐이야. 애들이 행복하도록 보조해줄 뿐이라고.” 애들 꿈을 그가 대신 꾸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다. “지금은 시작 단계인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잘 알지 못해서 숨는 사람들이 많거든.”

- 김소민, “김소민의 부탄살이”(〈한겨레〉2016년5월18일) 재구성

<다> 여러 가지 불행의 원인은 일부는 사회제도에 일부는 개인의 심리 - 물론 개인 심리도 대체로 사회제도의 산물이다 - 에 있는 것 같다. 나는 문명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일상적인 불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적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해 분명한 외부적 원인을 찾지 못함으로 거기서 벗어날 방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 더욱 견디기 어려워한다. 나는 이러한 불행의 원인이 주로 잘못된 세계관, 그릇된 윤리, 좋지 못한 생활 습관에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든 동물의 행복이든 모든 행복이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연적인 열정과 요구를 파괴한다.

하지만 나는 최근에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대부분 손에 넣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욕구를 깨끗이 단념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주된 원인은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에 있다. 청교도적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나 자신의 죄, 어리석음, 결점 등을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심의 여지없이 비참한 사람의 본보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로 나는 나 자신과 나의 결점에 무관심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점점 더 외부의 대상, 즉 세간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의 분야라든가 내가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다.

물론 외부에 대한 관심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세상은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의 지식은 획득하기 어렵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고통은 자신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고통처럼 삶의 본질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외부에 대한 관심은 그 관심이 생생한 한, ‘권태’를 완전히 막아주는 어떤 활동을 일깨워준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인 활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기껏해야 계속해서 일기를 쓴다든가 심리분석에 익숙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승려가 된다든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승려가 된 사람도 규칙적인 수도 생활에 쫓겨 자신의 영혼을 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다. 따라서 승려가 종교에 귀의한 덕분에 얻었다고 하는 행복은, 만일 그가 어쩔 수 없어서 도로 청소부가 되었더라도 얻을 수 있었을 행복이다.

- 버트런드 러셀, 『행복의 정복』에서 발췌

2. <가>의 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다>를 통해 설명하고, <나>의 필자와 <다>에 나타나는 행복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시오. (1000±100자)